

평생·평등노동권 확보운동 선도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12

여성노동자회

노동자들의 거리,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 있는 여성노동자회(회장 한명희) 사무실 입구에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포스터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여성노동자 실업 저수지’ ‘여성 노동자들은 항상 값싼 노동력의 담보물로 이용당해 왔다’ ‘해고·퇴직 뒤 기로에 선 여성-영등포로 갈까요? 청량리(588)로 갈까요? 또 다시 영세공장?’ ‘기혼여성의 길은 결혼→가내공업→파출부의 순환고리’...

70~80년대 구로공단에서 해고된 여성노동자들과 대졸출신 여성운동가들이 연대해 87년 발족한 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여성노동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조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끌어올려 70년대 대표적 여성운동으로 꼽히는 YH사건, 원풍모방사건에서 보여줬던 여성노동운동의 저력을 90년대로 이어

주고 있다.

79년 YH사건 이후 당국의 극심한 노동탄압으로 맥이 끊겼던 여성노동운동을 되살려 87년 여성노동자회 창립, YH여성노동자 신민당사 철야농성 때 숨진 김정숙씨 추모제 개최, ‘3·8 세계여성노동자의 날’ 부활, 여성노동자연대운동 등이 여성노동자회가 해 온 굵직한 일이다.

창립회원 1백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1천명 회원을 자랑하는 여성노동자회는 창립이후 구로공단 지역 여성노동자들이 부닥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부당해고, 구사대 폭력, 노조와해·탄압 등에 관심을 갖고 연대투쟁 및 교육을 펴왔다.

“창립 때나 지금이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차별적인 경찰·구사대 폭력, 위장 휴·폐업에 의한 해고 사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은 그대로죠. 더구나 최근엔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회사들마다 임시직·하청업무를 크게 늘려 여성 복지에는 더욱 멀어

져가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회 3대 회장 한명희(36)씨는 “이런 현실 때문에 올해 중점사업도 창립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로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이 즐겨찾는 여성노동자회가 들어서 있는 여성노동자 복지회관은 82평이나 되는 비교적 큰 공간이다. 처음엔 영등포시장안 7평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했지만, 회관 마련을 위해 여성노동자들

장·인권·남녀·자녀·건강문제 등을 고발·상담받고, 여성문화학교·탁아원·여성문고·공동세탁장을 운영한다.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엔 강의·풍물·비디오상영 등을 하는 ‘여성노동자의 날’ 문화행사를 갖는다. 이밖에 동거부부나 결혼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부부를 위해 민속혼례를 치러주기도 한다.

해마다 여성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9

기아임금·성차별·구사대 폭력 굳굳하게 맞서 땀땀 돈 모아 복지회관 마련...탁아소등 운영

이 그들의 노동과 땀이 땀 돈을 조금씩 때어내 3개월만에 3천5백만원이라는 거금을 모아 후원금 3천만원을 합해 88년 여성노동자 복지회관을 전세로 장만했다. 고만고만한 작은 방이긴 하지만 사무실, 도서실 겸 상담실, 탁아원, 강당을 갖춘 이곳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직

일 ‘기혼 여성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힘겹다” “허리 아픈 등 온 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다” “집에 돌아와도 기다리는 건 일터미이다” “탁아소가 많아졌으면...” 등등 수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기혼여성들의 바람을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 사무실 놀이방에 맡길 정도로 여성운동에 열심인 여성노동자회 실무진들은 “여성노동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8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 복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완호 기자)

임시직·하청업무 증가에 따른 불완전고용문제, 무차별적인 경찰·구사대폭력, 노동자 1인당 최저임금 35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남성 구사대의 성적 회로와 폭력 추방,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물가인상 저지운동 등이 여성노동자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이라고 실무간사 왕인순(30)씨는 밝혔다.

올해 사업계획 청사진이 아니라도 ‘여성노동자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임을 자부하는 여성노동자회의 올 한해 동안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

(신연숙 기자)

해결해 주기 위해 “올해는 특히 기혼 여성노동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 기혼여성의 노조 참여방안·모성보호 복지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사무국장 이재은(34)씨는 말했다. 4, 7살된 두 아이를 회관안 ‘튼튼이 놀이방’에 맡기고 있는 이씨는 “임금·성차별, 직장내 폭력, 끝없는 잔

업과 저임금 문제 등을 다룬 ‘여성노동자 대동제’를 열 때마다 여성노동자들이 엉엉 소리내어 우는 현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산적해 있는 여성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국적 기업의 대거 철수에 의한 여성노동자 대량해고 사태,